이명박 당선자 인수위원 프로필

시장중심 경제 이론가

사공일 국가경쟁력 특위장

경제학자 출신으로 전두환·노태우 정권에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과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대표적 시장중심 경제이론가. 당선자와는 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하며 인연을 맺었다. 경제살리기특위에 고문으로 영입돼 사실상 '이명박 경제고문'으로 불리게 됐다. 부인 이영희(67)씨와 2녀. ▲경북 군위(67) ▲서울 상대 ▲미국 UCLA대 경제학 박사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재무부 장관

검찰 조직혁신 기여

정동기 법무행정위 간사

2004년 기업경영 혁신 기법인 '6시그마'를 검찰에 최초로 도입하는 등 검찰 조직 혁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법조인 출신. 1985년과 1989년 일본 유엔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구소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했다. 후배인 임채진 검찰총장 취임을 앞둔 11월 말 대검찰청 차장직에서 물러났다. 부인 김외숙(53)씨와 1녀. ▲서울(54·사시18회) ▲한양대 법대 ▲법무부 보호국장 ▲대구지검장 ▲대구고검장 ▲법무부 차관

17대 국회서 산자위원장

맹형규 기획조정 간사

통신기자 출신으로 TV 앵커 등을 거쳐 내리 3선 의원까지 오른 중진. 15대 총선 때 정계에 입문한 뒤 당 대변인, 총재비서실장, 기획위원장 등 야당의 주요 당직을 지냈고 17대 국회 출범 이후 국회 산자위원장을 맡았다. 당 대선후보 경선전이 본격화한 이후에는 '당 중심모임'을 이끌었다. 부인 채승원(59)씨와 2녀. ▲서울(59) ▲연세대 정외과 ▲미국 컬럼비아대 ▲15·16·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대변인, 총재비서실장 ▲국회 산자위원장

이후보 공약 총괄 정리

강만수 경제1분과위 간사

재정경제원 차관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이명박 당선자의 최측근 정책통. 이 당선자와 같은 교회를 다닌 것을 인연으로 친분을 맺었으며, 지난 2002년 이 당선자의 서울시장 취임과 함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맡은 핵심 정책 브레인이다. 부인 하인경(60)씨와 2남1녀. ▲경남 합천(62) ▲서울대 법대 ▲미국 뉴욕대 경제학 석사 ▲행정고시 8회 ▲관세청장 ▲재정경제원 차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

'BBK 공세' 무력화 기여

진수희 정무위 간사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기간 '홍일점' 공동대변인으로 활약했던 초선 의원. 경선 당시 날카로운 논평으로 박근혜 전 대표 측의 전방위 파상 공세를 막아낸 수훈갑이었다.

200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원내에 입성한 뒤 제6 정조위원장과 원내 공보부대표를 지냈다. 김재원(59)씨와 1남1녀. ▲대전(52) ▲연세대 사회학과 ▲세종대 겸임교수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이명박 대선 경선후보 대변인 ▲17대 의원

관료 출신…업무추진 탁월

최경환 경제2분과위 간사

경제기획원과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거친 경제관료 출신의 초선 의원. 대선 후보 경선 기간엔 박근혜 전 대표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이명박 당선자의 반대편에 섰으나, 후보 결정 이후엔 선대위 일류국가비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당선자의 신임을 얻었다. 부인 장인숙(48)씨와 1남1녀. ▲경북 경산(52) ▲연세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보좌관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

'외교통' 재선 의원

박 진 외교·통일위 간사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보·정무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외교통' 재선 의원. 2002년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의 공보특보로 발탁돼 '정치 1번지' 종로구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에 입성한 이후 국제 및 외교분야 전문가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2004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조윤희(51)씨와 1남1녀. ▲서울(51) ▲서울대 법대 ▲외무고시 11기 ▲청와대 비서관 ▲한나라당 총재·대선후보 특보 ▲동 국제위원장 ▲16, 17대 의원

자타 인정 '교육통'

이주호 사회·교육위 간사

자타가 인정하는 한나라당의 '교육통' 초선 의원. 중립을 지켰던 대선후보 경선 기간에는 당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측에서 모두 교육 공약과 관련해 조언을 구할 만큼 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다.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와 고용정책전문위, 노사관계개혁위 등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박은진(45)씨와 1녀. ▲대구(46)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미국 코넬대 경제학박사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17대 의원

인수위 구성 완료 이명박호 들여다보니…

'친정체제 구축' 철저한 실용주의

경륜보다 실무 중시 전문가들 중용
지역 고려 안해…'핵심측근' 대거 포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의 특징은 이명박 당선자의 측근의 대거 포진에 따른 '친정체제 구축', 경륜보다는 실무를 중시한 전문가 배치, 지역적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실용주의 노선 등으로 요약된다.

◇**측근 전면 배치**= 당선자 비서실은 물론 인수위 각 분과위에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임 당시부터 손발을 맞춰온 이른바 '가신그룹', 안국포럼 멤버, 당내 경선캠프에 참여했던 '핵심 측근' 등이 대거 포진했다.

우선 비서실의 경우 경선 당시 비서실장을 지냈던 주호영 의원이 당선자 대변인을 맡았고, 이번 인수위 인선에 직접 관여한 '제1측근' 정두언 의원은 비서실보좌역을 맡았다. 또 행정실장에 내정된 백성운 전 경기부지사 등도 안국포럼 초기 멤버다.

또 우선 인수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획조정분과위에서 실무를 맡을 위원으로는 이 당선자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박형준 의원과 곽승준 고려대 교수가 전담한다. 경제1분과위 간사 강만수 전 재경부 차관을 비롯해 남주홍 경기대 교수, 현인택 고려대 교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 김대식 동서대 교수 등도 안국포럼 멤버로 분류된다.

이는 차기정부 초기 국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선자의 철학을 충분히 반영하고, 새정부 출범 직후에도 이들을 권력 핵심에 기용함으로써 '이명박 정부'를 조기에 안착시키겠다는 당선자의 의지로 풀이된다.

◇**전문가 중용**=국회 내 대표적인 '외교통'으로 알려져 있는 박 진 의원과 이 당선자의 대북·안보 정책공약의 성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현인택, 홍두승 교수가 외교·통일·안보분과를 맡아 북핵문제 해법 찾기에 활동의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에 없었던 법무행정분과위는 정동기 전 법무부 차관이 간사를, 이달곤 서울대 교수가 인수위원을 각각 맡아서 행정규제 혁파와 함께 참여정부 내내 논란이 돼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정부조직 개편 등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다. '경제대통령론'을 기치로 내건 이 당선자가 가장 신경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 경제분과에는 강만수 전 재경부 차관이 제1분과 간사, 최경환 의원이 제2분과 간사를 각각 맡았다.

이밖에 '교육통'인 이주호 의원이 간사를 맡아 대학교육 3단계 자율화, 영어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등을 전담할 계획이다.

특히 당내 경선기간 이 당선자의 경쟁상대였던 박 전 대표 캠프에 참여했던 의원 중에 최경환 의원, 중립을 표방했던 맹형규·박진·박재완 의원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모두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고려한 인선으로 평가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명박 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 이명박 대통령당선자
  - 당선자 자문위원
  - 임태희 당선자 비서실장
  - 정두언 보좌역
  - 주호영 당선자대변인
  - 이경숙 위원장
    - 국가경쟁력강화특위
      - 공동위원장:-사공일 전 재무장관 -데이비드 앨든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감독원 회장
      - •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T/F:박재완 의원
      - • 투자유치 T/F: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
      - •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T/F: 허충수 경북대 교수
      - • 한반도 대운하 T/F: 장석효 전 서울시 부시장
      - • 새만금 T/F:강현욱 전 전북지사
      - • 과학비즈니스벨트 T/F: 민동필 서울대 교수
    - 김형오 부위원장
      - 이동관 대변인
      - 백성운 행정실장
      - 메시지 공보팀장:신재민 전 조선일보 부국장
      - 총괄팀장:박영준 전 선대위 네트워크 팀장
      - 기획팀장:권택기 전 선대위 스케줄팀장
      - 취임준비위
      -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간사 이상목 시민단체 활동가
    - 기획조정분과위 — 간사 맹형규 — 국정목표수립, 운영기획/총괄조정, 국정과제설정, 국정로드맵 — 인수위원 박형준 의원, 곽승준 고려대 교수
    - 정무분과위 — 간사 진수희 —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국가가정보원, 중앙인사위 — 인수위원 남주홍 경기대 교수
    - 외교통일안보분과위 — 간사 박진 — 통일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 인수위원 현인택 고려대 교수, 홍두승 서울대 교수
    - 법무행정분과위 — 간사 정동기 전 법무차관 — 행자부, 법무부, 법제처, 국정홍보처, 검찰, 경찰 — 인수위원 이달곤 서울대 교수
    - 경제2분과위 — 간사 최경환 — 산자부, 건교부, 과기부, 농림부, 정통부, 해수부 — 인수위원 홍문표 의원, 최재덕 전 건교부차관
    - 사회교육문화분과위 — 간사 이주호 — 교육부, 복지부, 노동부, 문화부, 환경부, 여성부, 보훈처 — 인수위원 김대식 동서대 교수, 이봉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광주·전남 단 1명 …우려가 현실로

인수위 호남 소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26일 대통령직 인수위 소속 위원들과 비서실 인선을 마무리 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인사가 단 한 명만 임명되는 등 지역배려가 전혀 되지 않아 향후 국정 운영에서 호남 소외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이 당선자 측이 발표한 인선안에 따르면 이날까지 발표된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과 비서실 멤버 37명 중 광주·전남 출신은 김대식 동서대 교수뿐이다. 사회·교육·문화분야 인수위원으로 선임된 김 교수는 하지만 영광 출신이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경남에서 지내 지역 정서를 아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를 받고 있다.

그나마 당선자 비서실 보좌역을 맡은 이 당선자 최측근 정두언 의원이 광주에서 유년기를 지내 광주 출신으로 이해하고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 출신으로 분류된다.

전북 출신으로는 강현욱 전 전북지사(새만금 태스크포스팀) 뿐이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전주 출생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적지는 서울이어서 전북 출신으로 분류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반면 대구·경북 출신은 11명, 서울 출신은 6명, 부산·경남 출신은 6명, 대전·충청 6명 등으로 호남에 비해서 많은 수가 뽑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 측의 인재풀에 호남인이 없다 보니 이런 상황이 왔다"며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 당선자의 '실용' 노선 때문에 지역 배려는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